



△ 함양 목현리 구송, 천기물 358호

## 6. 소나무의 예술성

### 상징성

소나무는 은행나무 다음으로 오래 사는 나무로 우리는 장수의 상징으로 내세웠고, 십장생(十長生)의 하나로 삼았다. 거대하게 자란 노목은 장엄한 모습을 보이고, 줄기·가지·잎은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내며 눈서리를 이겨서 항상 푸른 기상은 곧은 절개와 굳은 의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부각되었다. 애국가에 “남산 위의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하고 노래하는 것은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강인한 의지를 말하는 것으로 소나무는 우리 민족의 나무로서 온 국민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우리나라의 산수는 매우 수려한데 여기에 소나무가 아름답게 수를 놓은 정경이 우리나라 자연미의 정형처럼 인식되어 왔다. 기암창송(奇岩蒼松)도 백사청송(白砂靑松)도 우리 민족의 기상과 정서를 길러온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사명당은 <청송사 靑松辭>에서 “소나무 푸르구나, 초목의 군자로다. 눈서리 이겨내고 비오고 이슬 내린다 해도 웃음을 숨긴다.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변함이 없구나! 겨울, 여름 항상 푸르구나. 소나무에 달이 오르면 잎 사이로 금모래를 체질하고 바람불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 (松兮靑兮, 草木之君子, 霜雪兮不腐, 雨露兮不榮, 不腐不榮兮, 在冬夏靑



임 경 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농학박사

靑, 靑兮松兮, 月到兮 篩金, 風來兮 鳴琴.”라고 예찬하고 있다. 창송(蒼松)은 군자의 절개를, 녹죽(綠竹)은 열사의 지조를 나타낸다는 시조의 한 구절, 또는 “낙락장송들이 너희들은 어찌 홀로서 바람 비 눈서리에 푸른가, 우리도 창천처럼 변하지 않겠다.”하는 시조나 “백설이 건곤에 가득할 때 홀로 푸르리라.”라든가, “설한풍이 있는 뒤에 송백의 절개를 알겠노라.”하는 시는 소나무의 불변의 의지를 읊은 것이라 하겠다.

소나무는 전체적으로도 물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지만, 줄기자체가 많은 주목을 받는다. 붉은 비늘로 몸을 단장하고 예술적으로 굽어 올라간 줄기는 조각미술의 정취요, 절정이라 할 수 있다. “솟아오른 푸른 용이 하늘에 뜬 구름을 안고 있다(地聳蒼龍勢抱雲).”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소나무의 줄기는 하늘을 오르는 용으로 보이기도 하였다. 때로는, 적룡(赤龍)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는데 그래서 송피(松皮)는 일명 적룡피라고도 하였다.

소나무는 깨끗하고 귀한 것으로 하늘의 신들이 땅으로 내려올 때에는 높이 솟은 소나무줄기를 택한다고 믿어졌다. 소나무는 땅과 하늘을 이어 주는 교통의 수단이 되어서 선(仙)의 분위기에 알맞았다. 솔잎을 씹으며 배를 채운다는 벽곡의 뜻도 이에 통하는 것이다. 《산림경제》에도 집 주변에 송죽을 심으면 생기가 돌고 속기(俗氣)를 물리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문에 들어서자 한 그루의 푸른 소나무를 보고 방에 들어서자 장수의 약을 끓이는 솟불을 보노라(入門唯見一番松 藥爐有火舟應伏).”라는 시도 속된 경지를 크게 벗어나고 있다. “소나무 아래에서 동자에게 물으니 노승은 약 캐러 산 속에 있다.”는 것도 역시 선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소나무는 불구(不垢)의 심정을 기르는데 큰 역할을 했다. “말을 소나무 그늘아래에 매어놓고 시냇물소리를 듣는다(歇馬松陰聽水聲).”라는 것도 소나무숲에서 마을을 다스리는 태도라 하겠다.

소나무의 꽃은 보잘 것이 없다. 다만 높은 자리에 서게 된 소나무인지라 그 꽃가루(松黃, 松花)마저 아름다움으로 눈에 비유되곤 하였다. 재매곡(財買谷)의 〈송화유취 松花幽趣〉라든가, “봄은 저무는데 솔꽃가루 마구 술잔에 날아들고 속세를 멀리해서 거문고에 마음을 붙인다.”의 시에서는 솔꽃가루도 그저 둘 수 없는 지경이 표현되어 있다. “절은 흰 구름 가운데 있고 중은 구름을 쓸지 않고 있다. 객이 와서 비로소 문을 여니 골짜기마다 솔꽃가루가 한창이다(寺在白雲中 白雲僧不掃 客來門始開 萬壑松花老).”라는 시는 골을 메운 노란 색의 황홀한 구름을 보는 듯하



▲ 선산 독동 반송, 천기물 357호



▲ 경남 해금강 부근 평지림의 소나무, 곡간성(曲幹性)(1990. 7)

다.

사람들이 소나무를 바라보는 눈은 비슷하였다. 솔잎 사이를 지나는 바람소리를 송뢰(松籟)·송운(松韻)·송도(松濤)·송풍(松風) 등으로 표현해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감상하였고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 명약으로 생각하였다. “솔바람 산골물이 속된 생각을 씻어준다(松風澗水洗塵襟).”라든가 “솔바람 소리 멀리 들려오고 바람 비 소리에 학의 꿈이 깨인다(萬籟鎖沈 聽遠音 風雨五更驚鶴夢).” 또는 “시냇물 굽이굽이 돌아서 흐르고 솔바람 소리 끊임없이 들려온다(溪回松風長).” 등에는 솔바람 소리에 매료된 청정의 지경이다.

신라의 화랑들이 한송정에 솔을 심고 깊은 산속에서 심신을 단련한 것은 단순한 이유에서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 무리 3,000이 각각 한 그루의 소나무를 심고 “지금은 울울창창해서 소나무의 끝이 하늘을 나는 구름에 이어지고 고선(古仙)은 멀리 가버렸지만 소나무만 남아 울울창창하다.”고 읊은 것이라든가, “소나무(蒼蒼) 숲은 푸르게 우거지고 솔숲에 노도소리가 깨어진다.”라든가, 황희(黃喜)의 “강릉 달밤에 높고 높은 소나무가 푸른 연기 속에 솟아났다(落落寒松鎖碧烟).”라는 시, “솔바람 맑게 나부끼니 옥고리가 흔들린다(松聲淸風搖環魂).”라는 시는 흰 모래밭

에 이어 길게 숲을 이룬 소나무의 풍치를 연상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다. 즉 “달 밝은 한송정의 밤에 파도는 잔잔하고 경포의 가을은 깊어간다(月白寒松夜 波安鏡浦秋).”하는 송림과 달빛 바다의 미의 조화는 우리의 마음을 서늘하게까지 해준다.

《식송론 植松論》에는 소나무의 유형·무형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예로부터 묘 주변에는 소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다. 1428년에 왕이 건원릉에 행차하여 동지제를 지내고 말하기를 “능침(陵寢)에는 예로부터 송백이 있어야 하는 법인데 쓸데없는 나무를 뽑아버리고 송백을 심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처럼 소나무와 잣나무는 능원묘에 가장 어울리는 나무로 취급되어 이 능원묘의 주변에 심어진 해자림(壕竹林)은 보호되었고, 민간인의 무덤 주변에 심어진 도래솔도 잘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묶여 있었다. 소나무는 시조에서 수없이 읊어졌는데, 한결같이 소나무의 변하지 않는 굳센 절개와 눈바람·서리를 이겨내는 지조와 소나무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정경이 소재로 되어 있다.

소나무는 그림의 소재로도 많이 쓰였는데, 신라 진흥왕 때 솔거(率居)의 황룡사 <노송도 老松圖>는 신화(神畵)로까지 알려졌다. 김홍도(金弘道)의 <송하취생도 松下吹笙圖>, 이인문(李寅文)



▲ 전북 선운사의 장사송, 천기물 354호(1992.9)



▲ 경기도 죽엽산의 소나무(1994.8.3)



▲ 속리산 법주사 입구의 숲, 소나무와 전나무(98.3.1)



▲ 해인사 입구 농산정의 소나무(1994. 7. 26)



▲ 경남 거제도의 소나무 숲(1986. 5)



▲ 경남 의령 가례면 운암리의 소나무(1995. 1. 17)

의 <송계한담도 松溪閑談圖>, 김정희(金正喜)의 <세한도 歲寒圖>는 소나무를 소재로 한 유명한 그림이다. 그밖에 <송하관폭도 松下觀瀑圖>·<소나무와 호랑이>·<소나무와 꿩> 등의 명화가 있다. 민화도 작호도(鵲虎圖)·해치도(海豸圖) 등은 오래된 소나무가 배경을 이루고 있다.

‘솔 심어 정자라.’, ‘못된 소나무 솔방울 많다.’는 속담에서는 다른 면이 나타나기도 한다. “소나무에서 나고 소나무 속에서 살고 소나무에 죽는다.”라는 말이 있다. 나무 중에서 소나무처럼 우리 생활에 물질적·정신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 것도 없으므로, 우리 민족은 소나무문화

권에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유럽이 자작나무문화, 일본이 조엽수림문화(照葉樹林文化)를 내세우듯이 우리는 소나무문화라는 측면을 시인하고 있다. 소나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 때나 고요할 때나 항상 우리의 자연과 어울리는 특질을 가지고 있고 긴 세월을 두고 보아도 싫증이 나지 않는데, 이것은 다른 나무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소나무는 정중하며 엄숙하고 과묵하며 고결하며 기교가 없고, 고요하며 항상 변하지 않고 자연스러우며 잘 어울리는 까닭에 우리 민족의 심성을 사로잡아왔다. 松



▲ 세한도(歲寒圖) 부분, 김정희, 1844년, 종이에 수묵, 23.0×69.2cm, 개인 소장, 국보 제180호

소  
나  
무

